소년단

1961.8

천리마 동상 나래 친다

윤 인균 시
김 창근 곡

2. 천리마 천리마 나래 돋힌 천리마
발구름도 씽씽 어디로 나니
천리마 천리마 나래 돋힌 천리마
발구름도 씽씽 어디로 나니
굶주리고 헐벗은 동무들을 찾아서
모두 함께 손잡고 배워나가자
강도 미제 원쑤를 몰아 내치고
평화 통일 한길로 나래친다네.

1961년 8호 내용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5 회)

윤 복 진

그림 최 순천

원수님은 어린 시절에 책에서만 배우신 것이 아니라 동무들과 재미 있게 유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씩씩하고 활동적인 어린 원수님은 재미나고 씩씩한 유희를 즐겨 노셨고 어린 시절을 즐겁게 뜻 깊게 보내셨습니다. 그 많은 유희들 가운데 오늘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 갈 잎 배와 《군함 바위》

어린 원수님은 할아버지 한테서 갈 잎으로 배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수님이 어렸을 때 순화강 기슭 (《낚시터》가 있는 곳)에는 갈'대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갈 잎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운 어린 원수님은 갈 잎 배를 만들어 동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선창에 나가 갈 잎 배를 띄우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갈 잎 배 동 동
누구 배가 빨리 가나.
갈 잎 배 동동
누구 배가 멀리 가나.

이렇게 서로 누구의 배가 멀리 가나 내기하면서 동무들과 재미나게 놀으셨습니다. 원수님이 만드신 갈 잎 배는 정말 배처럼 둥둥 떴습니다.

자그마한 갈 잎 배는 선창에서 떠나 물'살이 빠른 순화강으로 떠나 갔습니다. 돛대도 삿대도 없는 갈 잎 배는 순화강을 지나 넓은 대동강으로 떠나 갔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좋아라고 동동 떠나가는 갈 잎 배를 한참 바라보며 기뻐 하셨습니다.

… 내가 만든 갈 잎 배는 어디까지 갈가?

내가 만든 배는 바다로 가겠지.
바다는 얼마나 머나?
바다는 얼마나 넓으나?

어린 원수님의 마음은 줄곧 바다로 달렸습니다. 흰 갈매기 자유로히 나는 넓은 바다로 달리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넓은 바다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다는 가보시지 못하였습니다.

서해 바다는 만경대에서 백리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원수님은 아직 어리셨고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원수님의 마음은 바다로 달렸습니다.

원수님 고향 집 옆에는 푸른 잔디 밭에 자그마한 바위 둘이 웃뚝 솟아 있었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이 바위를 군함이라 하시고 동무들과 함께 군함 놀이를 하셨답니다.

이때 원수님의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잡아 간 나쁜 왜놈을 치러 간다.》 하고 군함 바위에 높이 앉아 왜놈 치는 대장이 되여 동무들을 지휘하셨습니다.

나는 그 때의 어린 원수님의 심정을 그려 보며 다음의 시를 읊었습니다.

군함 바위

군함 바위 오르면
바다 물이 철썩

원수님의 생각은
푸른 바다로 달렸네

종이 말아 만원경
남해바다 바라 보면
거북선이 두리둥둥
왜놈 배들 갈팡 질팡

나두야 이담에
왜놈치는 대장 될래

아름다운 우리 나라
다시 찾아 꽃 피울래.

(만경대 시초 중에서)

☆ 산'가치 놀이

하루는 동무들과 마당 한 귀에 둘러 앉아서 나무 가지를 꺾어 놓고

《하나, 둘, 셋…》하고 세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놀며 자라나는 가에 대하여 항상 주의 깊게 살피시는 어머니는 이것을 보시자

《애 중손아, 그게 무슨 놀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은 벙실 웃으며

《산'가치 놀이 해요.》하고 대답을 하면서 자기도 산'가지를 배워 할아버지처럼 셈을 잘 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가치라는 것은 참대로 만든 자그마한 꼬챙이 입니다. 그때 가난한 농민들은 주판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산'가치를 자작 만들어 주판 대신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 후 원수님은 셈을 썩 잘 하셨습니

다. 칠골 창덕 학교 시절에도 산수에 펄적 날으셨다고 합니다.

☆ 졸음이 안 오는 《약》

원수님은 어린 시절 짧은 시간을 리용하여 유희 (오락)를 잘 조직하였습니다.

창덕 학교에 다니시던 시절 원수님이 학습하시던 외가 집에는 해만 지면 많은 동무들이 찾아 왔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도 동무들이 찾아 오면 인차 대문 밖으로 뛰여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미처 신발도 바로 신지 못하시고 뛰여 나가 일일이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 들였습니다.

《마침 잘 왔다. 내 혼자서 이 문제를 아무리 풀고 풀어 보아도 풀 수가 없구나. 어디 우리 모두 달라 붙어 한 번 풀어 보자꾸나.》

이렇게 놀러 온 동무들을 학습에로 이끌어 나가 셨습니다.

중국 동북에서 나오신지 얼마 안되는 이른 봄이였습니다. 몇몇 동무들이 원수님의 방에 모여서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도 그리 깊지 않았는데 학습에는 열의가 없고 낮에 놀기에만 정신이 팔렸던 동무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원수님은 《자 재미 있는 수수께끼 놀이를 하자꾸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에 졸던 동무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되였습니다.

《그래 무슨 수수께끼를 할가?…》

《옳지, 그래 좋은 문제가 생각 나는구나.》 하시고 무릎을 탁 치며 더욱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졸음이 가시지 않은 동무의 잠을 아주 깨우자는 의도에서 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약도 많은데 졸음이 안 오는 약은 없을가?》 원수님은 어른처럼 시침을 뚝 따고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러자 동무들은 새'별 눈을 반짝이며 저마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옳지, 좋은 약이 있지.》하고 졸던 동무 하나가 말하였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약이냐?》 원수님은 졸던 동무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 동무는 자기의 살을 꼬집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꼬집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야.》

《아니 그것은 좋은 약이 못돼.》

《그럼 눈섭을 뽑는 약도 있지.》

《그것도 문명인의 약은 못돼.》

《그럼 너는 그 밖에 무슨 좋은 약이 또 있니?》

《참 좋은 약이 있지, 이제 당장 그 좋은 약을 보여 주마.》 하고 원수님은 동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수님은 집 앞에 있는 우물로 가서 찬 물을 한통 길어 모두들 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원수님은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졸음을 쫓는 데는 이게 세상에 다시 없는 좋은 약이야.》하고 말입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 씨름, 썰매 타기, 군사 놀이등 씩씩하고 재미 있는 유희와 오락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유희들은 치렬한 승부를 다투는 놀음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무들과 싸우거나 의가 틀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어느 한편의 대장 노릇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공평한 립장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무들이 어린 원수님을 따랐고 함께 놀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아침 해만 뜨면 《증손아, 놀자꾸나,》 하고 동무들이 사립 문'가에 모여 들었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마음에 맞지 않는 동무이거나 좀 나쁜 동무들도 따 돌리지 않고 함께 놀면서 나쁜 점을 타일러 주며 고쳐 주시군하였습니다.

자기 보다 나이가 우이고 힘 센 동무들도 잘 휘여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언제나 어린 원수님을 두고 집안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조화들었다. 무슨 수단으로 많은 동무들을 손탁에 모아 넣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 증손이는 이담에 큰 사람이 될거야.》 하시고 어린 손자를 기특히 여기시며 무척 귀여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위하여 썰매랑, 연이랑, 그 밖에 재미나는 놀음'감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만드시는 것을 한 번만 보면 그 후부터는 원수님이 손수 만들어 노시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한 가지 유희를 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나게 놀 수 있도록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무들에게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씨름 놀이 하나만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경봉 우에 있는 《큰 씨름 터》에서 편을 갈라 씨름을 하시고는 동무들을 데리고 《약수 터》에 내려 가 씨원한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신 다음 소나무 우거진 만경봉에 둘러 앉아 아름다운 고향 산의 고운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흘러 가는 대동강을 바라 보시군 하였습니다.

《우리 고향 만경대는 참으로 아름답지, 만경봉에 오르면 온 세상이 다 바라 보이지, 여기에 오르면 내 가슴은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 같애.》하고 어린 동무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자기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불러 일쿠군 하였습니다. 이렇듯 원수님은 유희와 오락을 통해서도 힘과 지혜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당에 드리는 노래

리 맥

한 없이 넓고 넓은 사랑의 품

끊임 없이 찾아 옵니다.
온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당의 숨결 높이 뛰는
그 모든 곳에서

로동자도 농민도
당 위원장도 지배인도
누구나 엄숙히
이 집 문으로 들어 섭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하고 의논하고 새 가르침 받
으려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맡아 하려고

밤이 깊어도 닫길 줄 모릅니다.
이집의 큰 대문들은
밤이 깊어도 꺼질줄 모릅니다
이 집의 밝은 불'빛은

김 일성 원수님이
일 보고 계시는 집
언제나 온 나라를 살피시며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집

우리 모두 그 어데 있어도
노래를 부르며
목숨으로 지키는 당 중앙이여
천리마의 새벽은
날에 날마다 여기서 밝아 오르고
밝디 밝은 공산주의 태양은
여기로부터 온 나라에 빛을 뿌립
니다.

당 중앙은

힘과 지혜의 어머니
당 중앙은
한 없이 넓고 넓은 사랑의 품

우리는 노래합니다.
당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당이 있음으로
우리에게 보다 좋은 래일이 있는
것을

당이 한 번 마음 먹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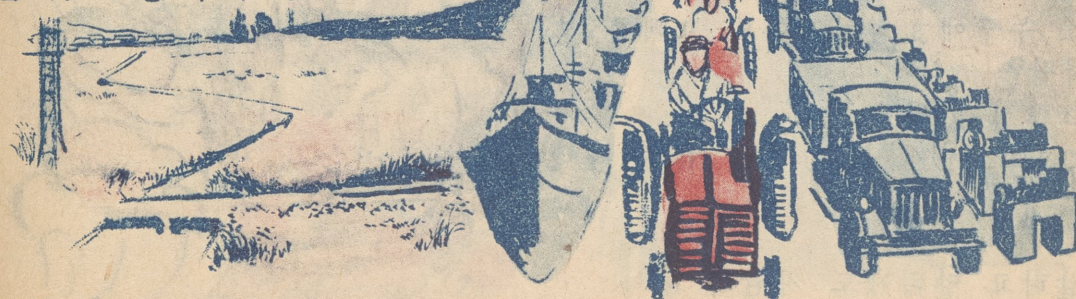
(1)

당이 한번 마음 먹으면
큰 산도 하루 밤 새에
자리를 옮긴다오.

당이 한번 마음 먹으면
온 강물도 오리오리 갈라져
논밭으로 흘러 간다오.

당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장수

당의 손'길 가 닿으면
매말랐던 땅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여 난다오.

당의 손'길 가 닿으면
앞 못 보던 우리 동무도
두 눈 번쩍 뜬다오.

당의 손'길은 정말
옛말에 나오는 요술 할아버지의
손'길

(2)

어제 날엔 달구지나 겨우 만들던

우리 나라
오늘은 자동차도 뜨락또르도
산 같이 큰 배도 척척 만든다오.

어제 날엔 베적삼도 못 입던 우리 나라
오늘은 돌에서도 갈대에서도
비단천이 폭포처럼 쏟아 진다오.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 나라
들은 들마다 황금평이라오.
산은 산마다 황금산이라오.

그 누구예요. 천리마의 고삐를 본 사람?
그렇지만 당은
그 보이지 않는 고삐를 잡아 나아 간다오.

달리고 달리여도 씨원치 않아
천리마로 내달리는 우리 나라

당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당은 우리에게 슬기를 주고
당은 우리에게 날개를 준다오.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 문이라곤 모르고 자랐답니다.
나어린 시절에

궁전이요, 야영소요,
그런 말은 더욱 듣지도 못했답니다.

있었다면
가난과 굶주림과 눈물 뿐
기쁨이란 알지 못하고 자랐답니다.

하늘에선 해'님이 빛을 뿌려도
잠을 깨면 언제나 어둠 뿐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자나 깨나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당이여
따뜻한 어머니 품이여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말 모르고 자라납니다.

있다면
기쁨과 노래와
아름다운 꿈만이 있을 뿐
언제나 집을 나서면
넓으나 넓은 품이
나를 안아 줍니다.

당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책을 주고
철 따라 새 옷 입혀 주거니

당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 가슴에 펄펄
붉은 넥타이 매여 주었고
날마다 궁전 문을 활짝 열어 주거니

당은 기쁨이며 희망
당은 공산주의 앞길 열어 주는
밝고도 밝은 태양
당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은 꺾을 자 없다

—조 쏘, 조 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이야기—

영식이네 집안 식구들은 오늘 저녁도 전등 불'빛 휘황한 아빠트 창'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 밖에서는 밤을 모르며 일떠서는 아빠트 건설장들에서 가끔 파란 용접봉의 불'빛이 비쳐 옵니다.

가슴 흐뭇한 마음으로 거리를 바라 보시며 아버지는 웃음 어린 얼굴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신이 나는 세상이다. 저렇게 밤 낮을 모르고들 일을 해도 도무지 힘든 줄을 모르는 세상이니 말이다. 아마 너희들도 학교에서 들었을테지, 이번에도 우리 수상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쏘련과 중국을 방문하시고 얼마나 큰 일을 하시고 돌아 오셨니.》

《아버지 이번에 김 일성 원수님이 쏘련과 중국을 방문하시구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으셨지요?》

《그렇구 말구, 그 어떤 원쑤놈들두 우리 나라에 아예 범접도 못하게 만들었지.》

영식이가 묻는 말에 아버지는 이렇게 허두를 떼시였습니다.

《쏘련이나 중국 하구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 왔지만 이번에 이 두 나라와 우리 나라 사이에 각각 맺어진 조약으로 더 한층 굳은 친선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조약에서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데서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어떤 제국주의놈들이 조약을 맺은 상대방 나라에 쳐 들어 온다면 서로 자기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여기고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기로 했거든.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강하구 아주 신식 무기라 무기는 다가지고 있는 위대한 쏘련과 이처럼 굳게 단결해 나가는 우리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대해 어떤 원쑤들도 함부로 덤벼 들지 못한단 말이다.》

《아버지! 지금 미국놈들이 가슴이 서늘하겠지요?》

옆에서 동생 영순이가 한몫 끼여 들었습니다.

《그렇구 말구 이번에 우리가 맺은 이 조약들은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앉아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 막고 전쟁 소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에게 큰 타격을 준거다. 그놈들이 분별 없이 덤비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맺은 이 조약은 또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그만큼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의 맨 동쪽 끝을 지키고 있는 데 이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는 철벽이다. 우리 힘이 강대하면 할수록 적들이 덤벼 들지 못하는 법이거든.》

아버지는 벽에 붙여 있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더욱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훌륭한 당과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랑과 기쁨이다. 생각해 봐라! 미국놈들이 모조리 불살라 버린 재'더미 우에서 그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의 나라로 만들었으니 말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건 못 만드는것 없이 다 만들어 쓰게 되지 않았니.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런 훌륭한 아빠트에서 살아 봤니! 그러기 이번에 수상님이 우리 나라 대표단을 인솔하시고 가셨을 때 쏘련과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도 우리 당과 수상님에 대해 얼마나 높이 평가했니.

우리 수상님을 우리 나라 혁명을 령도하시는 데서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의 뛰여난 활동가라고 높은 신임과 존경을 표시해 주었단다.

또한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하에 우리 당이 레닌이 가리킨 사회주의 길로 꿋꿋이 걸어 나가고 있고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이 모두 옳고 령도가 아주 현명하다고 한결 같이 치하해 주셨단다. 그리고 쏘련의 지도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동방 다른 나라들의 모범으로 된다고까지 말씀했단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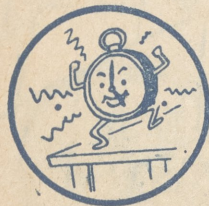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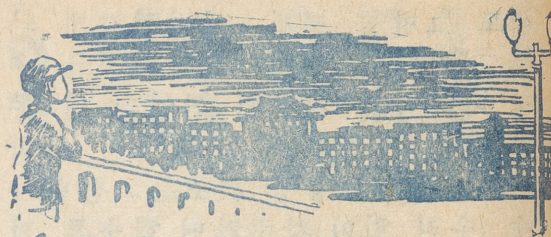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영순이는 저도 모르게 손'벽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당과 영명하신 김 일성 수상님을 모시고 있는 자랑과 기쁨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당과 수상님의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이번에 수상님을 비롯한 우리 나라 당과 정부 대표단이 거두고 돌아 온 성과들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고 있고 그 마음을 7 개년 계획의 첫 해 과업을 실행하는 투쟁에 바치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당과 수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아 가서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길로도 된다.

이 번에 우리 당과 정부 대표단이 거둔 성과는 싸우는 남조선 인민들에게도 큰 힘을 북돋아 주게 될게다.》

《아버지, 그러기에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제 4 차 당 대회 전으로 모두 모범 소년단 단체의 영예를 쟁취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영식이가 하는 말에 아버지는 《그래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구 공부 잘 해서 당 대회에 더 훌륭한 선물을 드리자!》 라고 하시며 벽에 걸린 수상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시는 것이였습니다.

②

우리는 잊지 못해요

안 룡 만

초록 빛 가로수, 해'살에 빛나는 아침
책 가방 달랑달랑 학교에 갈 때
밝고 밝은 교실에서 배우며
마음껏 뛰놀 때 우리는 잊지 못해요.

저녁이면 아빠트 베란다에 나와
별 하나 하나……세여 보며
우주 려행 떠날 꿈을 그려 볼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잊지 못해요.

이 번 8월 명절엔 기쁜 일 많아
돌에서 뽑은 비날론 꽃실 나오고
갈과 옥수수'짚으로 비단 천 짠다는
즐거운 소식 들을 때도 생각했네.

즐거울 때, 기쁠 때 언제나 잊지 못하는
남녘 땅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
미국놈 구두'발에 짓밟히고 쓸어질
동무들께 비단 옷 입히고 싶어—

애타게 그리는 통일의 아침.
남북 직통 렬차가 기적을 울리며.
신의주 역에서 차량마다 가득가득
부산으로, 남해 바다'가로 떠나 가겠지.

그날엔 령남 땅 우리 누나도
인조 비단 무늬 고운 치마 저고리,
어린 동무들은 비날론 하늘하늘 가벼운
교복을 걸치고 책 가방 달랑달랑……

우리는 잊지 못해요.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운 누나들,
얼굴에도 행복한 웃음이 피고
삼천리에 락원 동산 꽃필 앞'날을!

당의 가르침 받들고

☆ 서 강렵 형님 처럼

함남 고원군 상산 중학교 제 6 분단에서

김 준 규 그림 류 현숙

학교 앞 마당에 키 높이 자란 은행 나무 아래에 반 동무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일어 서서 말하는 동무가 2반 반장인 최 만수입니다.

반 동무들은 저마다 붉은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 붉은 수첩에는 소년단 창립 15 주년에 제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내용이 하나 하나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이 붉은 수첩의 한 장 한 장을 펼치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 나가고 있습니다.

편지 공부를 끝낸 반 동무들은 반실을 향해 가다가 구령도 없이 학교 마당 여기 저기에 흩어졌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주어 휴지 통에 넣는 동무가 있는 가하면 검불과 돌맹이를 주어다 버리는 동무도 있습니다.

저기 저 정문 앞 어린 가로수의 푸른 잎을 만져 보며 좋아 하는 동무의 이름은 정 영주입니다.

지난 봄에 떠다 심은 저 어린 가로수 곁에 영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심 어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분이 적어 잎이 마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서 강렵 형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소년단원이 되자.》는 제목으로 반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후 영주는 매일 세번씩 저 어린 가로수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푸르싱싱 자라는 어린 가로수 곁에서 저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영주 동무의 이 기쁨 속에는 아동단원들을 따라 조국과 자기 고향 그리고 인민을 끝 없이 사랑한 서 강렵 형님처럼 자기도 나라를 사랑하는 떳떳한 소년단원으로 자란다는 자랑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원쑤놈들의 그 무서운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어린 생명을 오직 조국에 바쳐 싸운 소년 빨찌산 서 강렵은 고원 군내 소년단원들과 우리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 살아 있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말 없이 학교 마당

③

과 둘레를 제집처럼 깨끗이 거두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그처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졌었다는 서 강렴 형님의 모범을 배우며 이들도 그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반실로 가던 길에 반 동무들은 넓은 도랑물 다리에 멈춰 서서 달구지에 패인 흙을 꽁꽁 다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도랑 물은 너무 넓어서 인민반 동생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도랑에 얼마 전 2 반 동무들이 어두운 밤에도 어린 동생들이 잘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조약돌까지 깊이 다져 넣은 다음에야 2 반 동무들은 혁명 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반실로 갔습니다.

☆ 동무를 사랑하는 참된 마음

해 뜨기 전 이른 아침입니다.

《너 웬일이가?》

《오, 너였구나.》

학교 마당 한 모퉁이에 떠 옮긴 네군도 나무 곁에서 만난 2 반의 오 성남이와 김 인천 동무의 이야기입니다.

반 동무들은 4월 15일 기념으로 심은 나무를 몇 대씩 맡아 돌보기로 했습니다.

인천이와 반 동무들은 매일 아침 학교 마당에 와서 맡은 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남이만 늘 빠졌습니다.

그는 늘 집 사정을 핑계 대고 맡은 나무를 돌볼 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이가 맡은 나무는 인천이가 맡은 나무 곁에 있습니다

인천이는 시들어 가는 성남이의 나무를 보면서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천이는 나쁘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한 번은 성남이가 반 모임에 빠져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인천이는 그를 만나자 빽소니'군이라고 욕했습니다.

부아가 난 성남이는 가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툰 일이 있습니다.

그 후 둘의 사이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는 시들어 가는 성남이의 나무를 보면서도 《게으름뱅이 같은 게 분단 모임에서 한 번 혼나 봐.》 하면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 반장인 만수는 반 동무들에게 성남이의 나무에도 매일 아침 물을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동무를 사랑해야 된다는 당 중앙 위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인천이는 지난 날 성남이를 돕지 못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성남이의 소년단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고 학습해 나가는데 그의 생활인들 어찌 안 달라 지겠습니까!

요지음 성남이는 제가 맡은 나무에 물을 주려고 사흘 아침이나 나왔다가 되돌아 섰습니다. 자기가 나오기 전에 벌써 누구인가 와서 자기 나무에 물을 주었으니까요. 잠이 많은 성남이는 그래도 제딴에는 일찍 나온다는 것이 늘 다른 동무들보다 늦었습니다.

이날 아침은 단단히 마음 먹고 나왔는데 마침 자기 나무에 물을 주는 인천이와 마주 쳤습니다.

《고마워 인천이.》

《이때까지 반 동무들이 물 줬어, 나야 뭐….》 이렇게 말하고 함께 물을 주는 두 동무는 전에 없이 다정스러웠습니다.

☆ 집단을 위하여

분단 토끼 우리에서는 많은 토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남이는 잊지 않고 토끼들에게 풀을 주며 《토끼야 어서 냠냠 많이 먹고 빨리 크렴》하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성남이가 가져 온 여덟 마리의 토끼도 있습니다.

성남이는 어미 토끼 한 마리를 집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짱을 얹었더니 11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 낳은 날 성남이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 동무들은 아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성남이는 남몰래 울 안에서 토끼를 길렀으니까요.

새끼들은 어느듯 중 토끼로 자랐습니다.

그 새에도 두 배나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럴 때 반에서는 지난 여섯 달 동안 해온 《꼬마 7 개년 계획》활동을 총화 지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딴 것은 다 다른 반에 앞섰는데 토끼 기르기가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토끼가 세마리씩이나 잃어졌습니다. 한 마리는 지난 봄에, 두마리는 요지음에 잃어 버렸습니다.

두번 다 토끼 당번인 김 인천이가 토끼 풀을 주고 문을 꼭 닫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졌던 것입니다.

반 동무들은 모두 안타까와 했습니다.

분단에서 총화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반에 뒤 떨어진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토끼를 많이 기르라는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 못한 것이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더우기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까지 학습하고 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러던 때에 글쎄 성남이가 10 마리의 토끼를 바구니에 담아 안고 인천이를 찾왔습니다.

《이걸 반 토끼로 만들자!》하고 성남이는 자기가 내운 10 마리의 새끼를 내려 놓으며 말했습니다. 인천이는 그저 좋아서 껑충껑충 뛰였습니다.

두 동무는 토끼를 나눠 안고 반장인 만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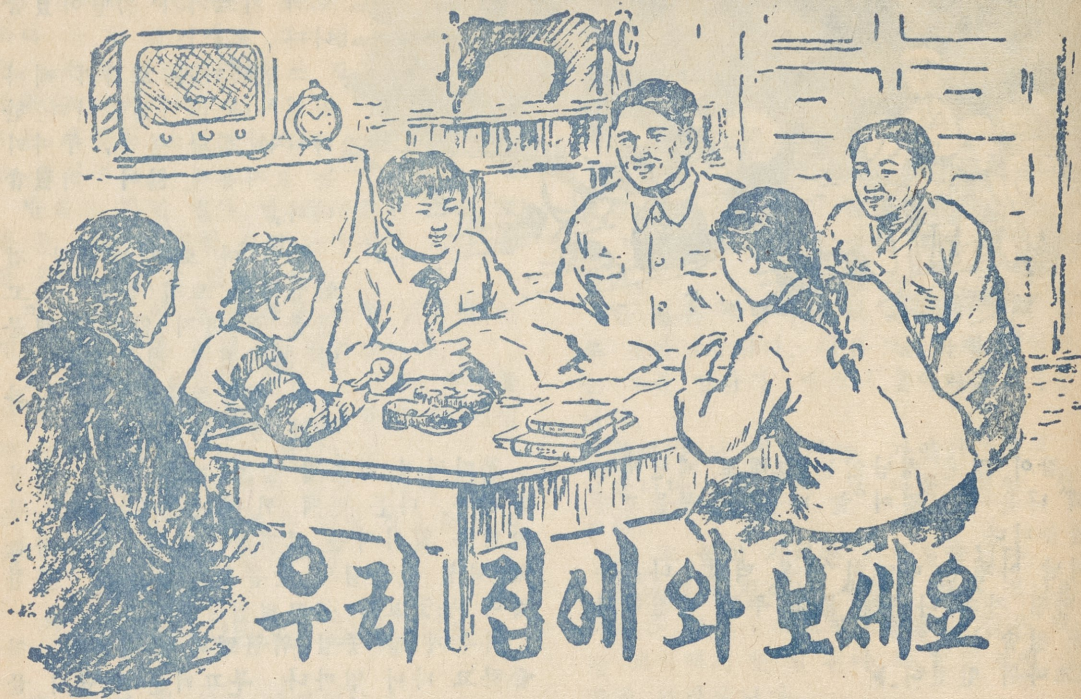
반 동무들은 반 모임을 가지고 집단을 사랑하는 성남이를 높이 칭찬하였습니다.

10 마리의 토끼에서 8 마리는 분단에 가져다 반마다 하나씩 나눠 줬습니다.

《우리 반만 앞설 수 있니?》

하는 만수의 말에 반 동무들은 모두 찬성했던 것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가슴마다 새긴 만수네 반 동무들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동무를 사랑하며 집단을 사랑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④

우리 집에 와 보세요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예요.

사회주의 조국에 태여나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소년단원이면 아무에게나 다 있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 보세요.

《참 행복한 가정이지!》

이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이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남몰래 우리 집 자랑을 하고 싶어진답니다.

누구든지 하루 저녁 우리 집에 와 보세요. 평양 의학 대학에 다니는 둘째 형님을 빼 놓고는 일 터에서 학교에서 온 식구가 다 모이는 정말 이지 행복한 저녁이 예요.

⑤

새 교복에 책 가방을 든 네 학생이 척척 들어 서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지요.

이럴 때면 어머니는 얼마나 대견스럽게 맞아 주신다구요.

그러면 늘 맨 나중에 집에 돌아 오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 드릴가요.

흥남 비료 공장 직공장으로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항상 바쁜 아버지이지요.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25 년 전 스물 두살 때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 때 흥남 비료 공장은 노구찌라는 일본 자본가 놈이 독차지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공장에 들어 갈 때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글쎄 시험을 쳤다지 않아요. 시험이라니까 뭘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건줄 아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얼마나 센가 약한가 하는 것을 떠 보기 위해 모래를 넣은 가마니를 등에 지워 뛰워 본다지 않아요. 그래서는 힘 센 사람을 골라서 소처럼 부려 먹자는 거지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나는 막 웃었지요. 사회주의 조국에 태여난 나는 처음 듣는 말이였으니까요.

독한 까스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는 하루에 14 시간 이상씩 일했대요.

한번은 온 밤 앓으시고 지친 몸을 겨우 가늠하면서 밀차를 밀었대요.

이 때 5 m도 넘는 높은 데서 벽돌장이 떨어져 그만 아버지는 머리가 상했다지 않아요. 아버지의 머리에서는 막 붉은 피가 철철 흘렀지요. 그래 로동자 아저씨들이 여러 곳에서 막 뛰여 와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가자는 데 《칙쇼 늬들은 일이나 해. 머리나 좀 터졌는데 무시기 그리 많이나 가겠소까.》 하고 일본 감독놈이 고래고래 소리 치더라지 않아요.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부르르 떨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대뜸 일본놈 감독을 콩크리트 바닥에 보기 좋게 둘러 메쳤대요.

나의 아버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옛 이야기지요.

해방 후 아버지는 공장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며 로동당원이 되였지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기수랍니다.

해방 전에는 낫 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아버지가 해방 후에 일하면서 배워서 기수가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아버지는 일본 감독놈한데 이렇게 구박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기사가 된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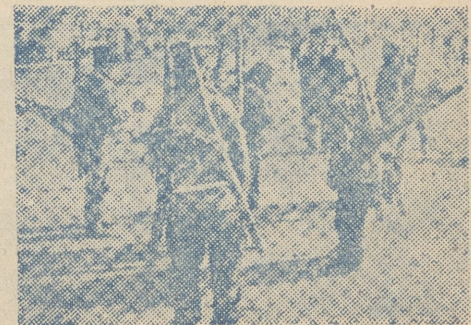
이것이 지주 자본가의 세상인 남반부에서나 또는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같으면 생각이나 할 일이겠어요.

나의 어머니

코신 한 켤레 사신어 보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는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는 또 어떻구요.

어머니는 새 교복을 타 입은 우리 네 형제가 척척 집을 나가고 들어 오는 것을 보는 게 제일 기쁘대요.

해방 전에 우리 형님들을 포단 하나 없이 헌 누데기로 기른 어머니니까요.

지금 일곱살에 나는 우리 막내 녀 동생 복자는 색동 저고리를 입고도 더 고운 걸

오늘 남조선에서 일'자리 없이 거리를 헤메는 실업자는 600 여 만 명이나 된다.

나의 둘째형

자 내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너희 큰 오빠들은 다 누더기 속에서 자랐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복자는《피 거짓말! 응 사 줘.》 하고 응석을 부리지요.

철 없는 복자는 참 아무 것도 몰라요.

실로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로 치마자락을 적셨을 가요.

그렇던 어머니가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일제시 형님은 이런 처지에 있었대요.

해방 후 남자들과 같이 떳떳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공장의 주인이 된 어머니도 열심히 노력하여 1946년도에 아버지와 함께 로동당원이 척 됐지요. 멋진 새 옷을 해 입고 당증 타러 시당에 갔대요.

그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집에 돌아 온 어머니는 어린 애 처럼 좋아하면서 우리 네째 형님을 붙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지 않아요.

그 때 아직 어렸던 형님은 직장에서 돌아 오신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울더라고 일러 바치며 웃었다지만 어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지난 5. 1절 전 날에는 어떠했는지 아세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 오니 룡성 기계 공장에 다니는 큰 누나가 상금 탄 돈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사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또 한 아름 선물을 내려 놓으며 둘째 형님 자랑을 꺼냈어요.

평양 의학 대학에 다니는 둘째 형님이 5. 1절 선물로 우리 형제들이 쓸 학습장을 내게 소포로 보내 왔거든요. 내게는 특별히 재미 있는 그림책까지 보내 와서 나는 더 우쭐해졌지요.

우리 둘째 형님이 어떤 형님인 줄 아세요. 오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되거든요. 우리 형님도 이제 방 하수 동무를 고쳐 준 흥남 비료 공장 의과 과장 강 하종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거예요.

나의 네째형

일본놈들 때 형님은 겨우 소학교를 졸업하고 흥남 공업 학교에 입학해 보자고 꼬박 3년이나 시험을 쳤지만 끝내 입학하지 못했답니다. 그 때 옷은 노닥노닥 기운 것을 입고 다녔지만 형님은 늘 공부는 1등으로 했다지 않아요.

나의 누나

그렇지만 돈 있는 집 아이들만 공부하는 세상에서 그게 뭐 소용이 있었겠어요. 돈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아예 입학부터 시켜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형님이 이제는 오래지 않아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선생님이 된답니다.

복자는 벌써 무용가래요

인민 군대에서 밤을 새며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맏형님은 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세째 형님도 군대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제대되여 지금 흥남 고중 2학년에 다닙니다. 이 형님은 앞으로 문학가가 되겠다나요. 그래 고중을 졸업하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배우겠대요.

고등 화학 전문 학교에 다니는 네째 형님은 늘 최우등입니다.

초중 때는 체육 때문에 최우등을 못 해 울기까지 했지만 지금은 목봉, 철봉도 쩽쩽 못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울 안에 만들어 준 목봉, 철봉'대에서 새벽부터 이를 악물고 련습한 형님이니까요.

요지음은 아침마다 나를 배워 주느라고 야단입니다.

우리 학교 3 학년에 다니는 둘째 누나는 나처럼 최우등은 못하고 겨우 우등이지만 춤을 잘 춰서 무용 써클에서 이름이 자자하지요. 그래 유치원에 다니는 복자에게 춤을 배워 주면서 훌륭한 무용가가 된다고 자랑입니다.

난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구요. 난 아직 딱히 말은 못 하겠어요.

리 승기 박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과학자도 되고 싶고 비행사도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에서 무엇인들 못되겠어요.

그저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행복을 가져다 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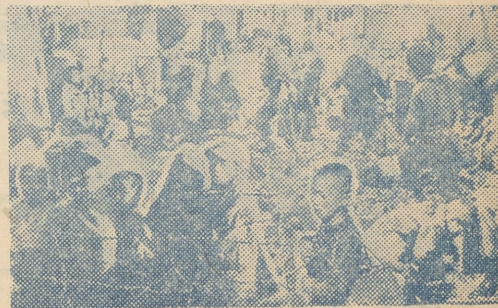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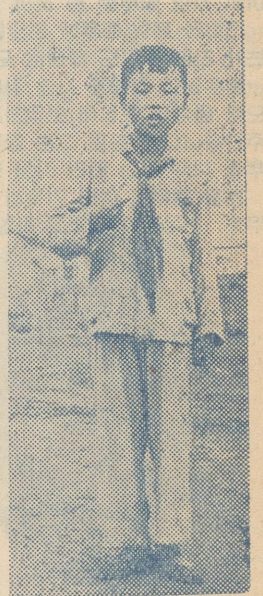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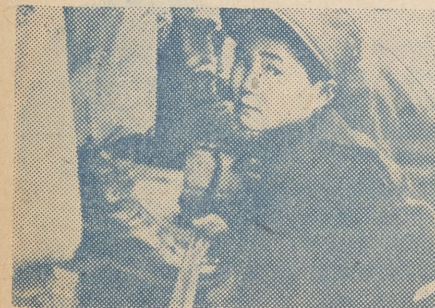
나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 구역

천기 중학교

1 학년 윤 태하

남조선에는 금년 1월만해도 먹을 것이 떨어진 농민들의 집이 100만 호나 넘었다.

남조선에는 먹을 것을 찾아 헤메이는 걸식 아동이 75만 9,711 명이나 된다.

보라! 구두 닦이에 나선 아이를. 남조선에서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가! 학교에라고는 문 앞에도 못 가 본 아이들은 63 만명이나 되는 데 있다는 학교도 미국놈들이 훈련장으로 빼앗기고 밖에서 공부하는 형편이다.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동무들

소년단원 동무들! 전 호에 계속해서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동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윤 태괄 동무

이 동무는 남포 유자녀 학원 8 분단 위원장 윤 태괄 동무입니다. 이 동무는 학원을 친히 방문해 주신 김 일성 원수님을 두 번이나 뵈었습니다.

원수님은 친 어버이처럼 원아들의 잠'자리까지 돌보아 주시면서 원쑤를 잊지 말아야 하며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였습니다.

그런데 태괄 동무네 분단에는 인민반 아이를 보다도 글을 잘 못 쓰는 동무가 있는가 하면 구구도 제대로 모르는 동무가 있었지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긴 태괄 동무는 먼저 동무들에게 최우등의 성적으로 원수님 은혜에 보답하자고 이야기 해주면서 글을 잘 못쓰는 동무를 도와 주었습니다. 한편 그는 공부를 가르쳐 줄려고 찾아 가면 뺑소니 치군 하는 동무를 128번이나 따라 가서 학습을 성의껏 도와 주어 우등생으로 되게 했지요.

태괄 동무의 이런 기특한 노력으로 분단 동무들은 모두 원수님의 말씀 지켜 우등, 최우등이 되였고 마침내 모범 분단의 영예를 쟁취했습니다.

한놈의 원쑤도 발을 못 부치게

문 제만 동무

이 동무는 군사 분계선 마을 판문군 동창 중학교 단 위원장 문 제만 동무인데 원쑤를 미워하며 혁명적 경각성이 높은 동무이지요. 그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단의 모범을 본 받기 위해 400 여 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이 동무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동무들이 이런 책들을 다 읽도록 하기 위해 몇 십리 되는 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 주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무들이 오늘과 같은 행복한 조국을 찾기 위해 싸운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 단원들의 모범을 따라 귀중한 사회주의 조국을 해치려는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도록 했어요.

때문에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어느 곳에서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면 내무 기관에 알리군 한답니다. 제만 동무가 내무 기관에 알린 것만 해도 34회나 된답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여

전 용덕 동무

이 동무는 함남 함흥 유자녀 학원 2 분단 위원장 전 용덕 동무예요.

용덕 동무네 분단은 처음에 여러 학원에서 온 동무들로 조직되여 집단을 위해 서로 돕고 받드는 생각이 부족한 동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 용덕 동무는 분단 위원장인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기 위해 힘 썼지요.

학습과 모든 생활을 일과에 의해서 빈틈 없이 하여 모범을 보이는 한편 동무들이 잠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동무들의 옷과 넥타이를 깨끗이 빨아다 놓아 주기도 하고 동무들이 침실을 잘 거두지 못할 때면 어머니 처럼 차근 차근 뒤'손질을 해 주군 했답니다. 이런 용덕 동무의 모범을 따라 나날이 좋은 일을 하려는 동무들이 늘어 갔지요. 그후 불과 한달 동안에만도 분단 동무들은 70 여 가지의 좋은 일을 하였고 학과 학습과 모든 생활이 잘 되여 갔습니다.

어데서나 바쁜 단 위원장

김 선숙 동무

어느 학교 단위원장 동무나 다 바쁜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자강도 고풍군 동도 중학교 김 선숙 동무는 학교에 오면 언제나 소년단원들 속에 들어 가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더 바쁘답니다. 반장을 만나고, 소년단원들을 만나고, 분단 위원장도 만나 어떤 일을 할가? 하고 항상 의논한답니다.

선숙 동무는 2 분단에 있는 신 선녀 동무가 공부도 뒤 떨어지고 위생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였지요.

그가 선녀 동무네 집에 찾아 가 보니 방안이 몹씨 어지러웠습니다.

선숙 동무는 한달 동안이나 다니면서 도와 주어 선녀 동무를 우등으로 이끌고 선녀 동무네 집을《모범 위생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이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서 위생 지식을 배워다가 밭에 나가 일'손을 도우면서 동리 어른들께 알려 드리기도 했답니다.

이래서 선숙 동무는 마을 어른들에게서 《마을의 꼬마 위생 선동원》이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답니다.

7년을 하루의 지각 결석도 없이

림 희성 동무

이 동무가 어떻게 해서 동무들의 자랑과 칭찬 속에 사는지 이야기해 드리지요.

이 동무는 7년을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계속 최우등을 한 동무인데 집단을 위해서도 그처럼 있는 힘을 다하는 참다운 동무이지요.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따라 토끼를 처음 기르기 시작하면서 불과 몇 마리 토끼를 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온실에서 밤 낮을 보내여 새끼를 내웠고 병든 토끼는 집에 가져다 어린 아이처럼 돌보며 치료도 해주어 지금까지 827 마리의 토끼를 키웠답니다.

이 동무는 동무들의 학습과 실험 실습을 위해서도 동무들과 함께 186 종의 표본, 괘편물, 실험 기구를 만들었고 학교를 아름답게 꾸리기 위해 20리'길을 걸어가 오동나무를 떠다 운동장 주변에 심은 일도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 여 종의 인민반 어린 소년단원들의 넥타이도 곱게 물들여 대려까지 준 일도 있어요.

이 모범적인 동무는 평남 룡강군 해원 중학교 단 위원장 림 희성 동무입니다.

뒤 떨어졌던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백 영기 동무

이 동무는 평북 신의주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단 모범 분단인 8 분단 위원장 백 영기 동무입니다.

이 동무는 학교에서도 제일 뒤 떨어진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만든 동무예요.

영기동무는 먼저 락후생이 많고 제일 뒤떨어진 2 반에 내려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락후생인 김 세이 동무를 우등으로 끌어 올렸답니다. 그리고 한편 자기의 모범으로 말썽'군 학생 3명을 반 생활에 취미를 부치게 하여 모범 반을 만들어 놓았지요.

영기 동무는 2 반을 모범 반으로 만들어 놓고는 또 3반, 5반, 6 반 등에 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모범 반이 된 2 반의 모범을 본 받도록 하여 전체 반을 모범 반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영기 동무네 학교 단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은 그를 《꼬마 길 확실》이라고 부른답니다.

7년을 최우등생으로

—자강도 동신군 동신 중학교 단 제 1 분단 홍 세영 동무의 이야기—

글 최 죽산　　　　그림 류 환 기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홍 세영 동무가 교실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그의 책상 밑에서는 옆에 앉는 김 용국 동무가 떨어진 필통에 칼, 연필, 자, 지우개 등을 황겁히 주어 담고 있었다.

《…네 삼각자를 좀 쓰려다가 그만…》하고 한 손에 필갑을 든 용국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부러진 연필을 깎아 쓰라는 듯이 주머니를 더듬더니 자기의 손칼을 내밀었다.

《괜찮아, 넌 오늘도 학습 준비를 잘 해오지 않은 게구나 옛다.》

세영이는 용국이에게 삼각자를 꺼내 주었다.

이날 집으로 돌아 오면서 세영이는 용국이에게 최우등생이 되자면 첫 걸음으로 학습 준비를 잘 갖추고 45분을 귀중히 여겨야 되며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갈림'길에서 용국이와 헤여진 세영이는 이날도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내여 준《알카리와 산과의 중화 반응》실험을 해보기 위하여 먼저 군 도서관으로 찾아 갔다.

《아저씨 〈화학과 우리의 생활〉이란 책을 빌려 주세요.》

《세영이는 사흘이 멀다고 찾아 오는 구나…》하며 아저씨는 빙그레 웃더니 여러가지 책들을 내여 주셨다.

집으로 돌아 온 세영이는 숙제를 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책들을 읽어 갔다. 얼마 후에야 그는 가성소다 (양재'물)로서도 알카리와 산과의 중화 반응을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였다. 그러나 가성소다가 없었다.

세영이는 얼마 전 생산 실습에서 백묵을 만들 때 선생님이 이야기 하시던 것을 적어 둔 학습장 생각이 났다.

거기에는 가성소다를 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 실험에 착수하였다. 소

분단의 위임을 끝까지 다하여

신 호걸 동무

강원도 천내 초등 학원에는 깊은 밤 언제나 인민반 3학년 동무들의 생활실에 들어 갔다 나오군 하는 동무가 있답니다.

그는 바로 2 분단 위원장인 신 호걸이라고 부르는 동무입니다.

그럼 호걸 동무가 인민반 동생들의 생활실에 들어 가서 무엇을 할가요?

호걸 동무는 포근히 잠들면서 차버린 동생들의 이불을 덮어 준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 공기도 바꾸어 주지요. 이 동무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분단에서 맡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 없이 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답니다.

인민반 3 학년의 입단 준비를 맡은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먼저 소년단원의 의무를 하나하나 써서 어린 동생들에게 나눠 줬어요.

그런 다음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의무 내용을 알게 했답니다.

한번은 못 쓰게 된 인민반 동생들의 걸상 4 개를 고쳐 주고 소년단원은 국가 재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해 주었답니다. 그 다음 부터 인민반 어린 동무들은 무엇이든지 제 손으로 하기 위해 힘 쓰는 것이였지요.

호걸이는 이렇게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소년단 조직에서 맡은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꾹꾹 실천해 나가고 있답니다.

분단을 위해서라면

리 종선 동무

이번에는 함남 함주군 신성 중학교 8 분단 위원장 리 종선 동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종선 동무는 분단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지만 특히 지난 해 《교마완충기 계획》 활동을 잘하였답니다.

종선 동무는 학교에서 토끼를 많이 길러 모든 동무들이 토끼 털 외투와 토끼 털 모자를 해 쓰도록 하라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토끼 기르기에 열성을 다했어요.

처음 분단에는 어미 토끼가 5 마리 밖에 없었어요. 종선 동무는 어미 토끼를 해결하기 위하여 30 리나 되는 친척 집에 가서 3 마리의 어미 토끼를 구해 왔답니다. 분단 동무들도 종선 동무의 모범을 따라 어미 토끼들을 구해 왔지요. 그리하여 분단에서는 280 마리의 토끼를 길러내게 되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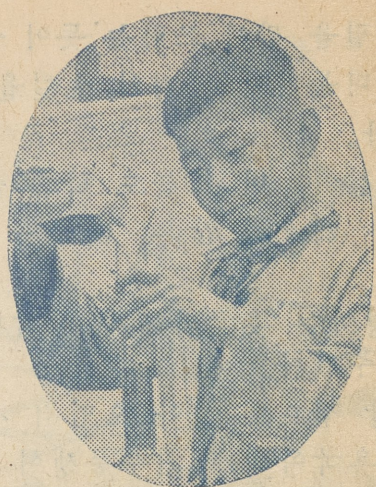
그래 51 명의 분단 동무들은 모두가 원수님의 말씀 대로 토끼 털 모자를 만들어 썼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뿐만 아니라 종선 동무는 분단의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실험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익혀 가면서 150 여 점의 교편물도 만들었답니다. 지난 4 월 15 일 모범 분단 칭호를 수여 받던 날 그는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금년에는 분단 동무들 모두가 토끼 털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토끼를 더 많이 기를 것을 다짐 했어요.

다와 석회를 따로따로 물에 풀어서 얻은 맑은 물을 한데 섞었다. 그릇 밑에는 흰 앙금이 생기였고 우에는 맑은 물이 떴다.

세영이는 맑은 물을 남비에 쪼린 후에 그것을 통에 넣어 불에 구웠다. 그가 가성소다를 만들어 내고 있을 때 용국이가 영화를 데리고 찾아 왔다. 세영이는 그들과 함께 열심히 가성소다를 만들었다. 그리고 흥미 있게 실험도 하여 보았다.

세영이는 연신 실험관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학습장 빈 모서리에 적어 넣었다.

세영이의 책상 앞 벽에는 원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여섯 장의 최우등 상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책 꽂이에는 혁명 전통에 대한 책들, 과학 서적들, 소설 책들이 가지런히 꽂

그가 실험하는 장면

혀 있었다. 책상 우에는 배운 지식을 익혀 가며 제 손으로 만든 《저항기》, 《단권 변압기》 등 여러가지 공작품들과 각종 화학 실험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날 세영이는 용국이와 영화에게 책들을 읽어 가면서 요'점들을 뽑아 내여 학습장 빈 곳에 적는 방법등 여러 가지 학습 방법

집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단 위원장

배 순묵 동무

이 동무가 어느 학교 단 위원장인가구요? 황북 송림시 송림 중학교 단 위원장 배 순묵 동무입니다.

순묵 동무네 학교에는 지난 날 소년단 조직을 떠나 작난에 팔리여 돌아 다니는 동무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 순묵 동무는 분단에 마음을 부치지 못하는 동무들이 제일 많은 2 학년 1 반에 내려 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친히 지냈습니다. 그래 그들이 취미 있어 하는 토끼 기르기도 같이 했지요. 비가 몹시 오는 날이나 또는 병든 토끼가 생겼거나 토끼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그들과 함께 밤을 새우기도 했답니다.

그들은 순묵 동무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우등의 성적을 거두었고 좋은 동무로 되였지요.

이 뿐만 아니라 순묵 동무는 항상 모든 분단 동무들 속에 들어 가 같이 생활하면서 분단들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동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때에 알고 그를 해결해 주기 위해 힘 썼습니다.

그래 순묵 동무는 모든 동무들이 자기 취미에 따라 크루쇼크 생활도 훌륭히 하면서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였답니다.

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었다.

세영이는 교과서 공부 뿐만 아니라 과외 독서도 많이 하는 것이다. 올해에도 《만경대》, 《아동단》,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수학의 지혜》, 《흥미있는 산수 풀이》 등 여러가지 책들을 50 여 권이나 읽었다. 세영이가 만든 《지식의 열쇠》란 책에는 책을 읽고 느낀 감상과 필요한 지식들을 적은 것이 날을 따라 늘어 간다.

집으로 돌아 오면 일과표 대로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동생의 학습을 도와 주며 그날 배운 것을 실험 실습을 하여 가며 복습한다. 복습이 끝나면 다음 날 배울 과목을 한번 읽어 보고 자리에 눕는다. 누워서는 하루의 생활과 함께 배운 것을 머리 속으로 외워 보군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돌아 온 세영이에게 생동에 있는 사촌 형님의 결혼식에 가자고 했다. 세영이는 몇 년간 군대에 나갔다가 돌아 온 사촌 형님이 몹시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보다 숙제 공부 걱정이 앞섰다.

《공부를 안하고 어딜 간담.》

이렇게 생각한 세영이는 《어머니 먼저 떠나세요. 전 숙제를 마치고 가겠어요.》라고 하였다.

숙제와 복습을 마친 후에야 세영이는 형님네 집으로 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비'방울이 점점 커져 가더니 얼마 지난 후에는 대'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해 만에 만난 사촌 형님과

소년단 반장

김 완식 동무

동무들! 이 동무의 사진을 먼저 보십시요. 낯 익은 동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바로 소년 신문에 모범 반장으로 크게 소개된 함남 북청군 성동 중학교 21 분단 5 반 반장 김 완식 동무입니다.

동무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완식 동무는 4 년 간 계속 최우등을 하였고 반 동무들도 모두 우등, 최우등으로 이끈 동무입니다.

반장인 완식 동무는 반 사업이 잘 되여야 분단 사업이 잘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완식 동무는 동무들이 반실에 모여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할 수 있도록 먼저 반실부터 아담하게 잘 꾸렸답니다. 반실에는 동무들이 즐겨 읽는 책들인 《만경대》,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아름다운 이야기》 등 82 권의 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축구 공, 혁명 전적지 답사 놀음판 등도 마련해 놓았어요.

반실이 이처럼 동무들의 마음에 들게 꾸려지자 동무들은 즐겨 모여 들었답니다.

완식 동무는 복습이 끝나면 회상기 모임도 가지고 여러가지 재미 있는 놀음도 조직하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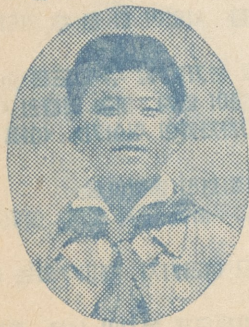
반 생활이 이처럼 흥미 있게 진행되자 모두 한 마음으로 뭉치어 서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 반실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수첩에는 201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답니다. 참 모범 반장이지요.

이야기도 변변히 못 한채 가겠니, 비도 억수로 내리는데…》

친척들은 세영이가 떠나는 것을 막 말리였다. 그러나 밤 중으로 집으로 가지 않으면 래일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했을 때 사촌 형님도 더는 말리지 않았다.

그는 25 리 되는 먼 길을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 왔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에도 일찍 학교로 나갔다.

× ×

이렇듯 7 년 간 최우등을 한 세영 동무는 지금도 매일 매일 시간표 대로 배운 지식을 실험 실습으로 익혀 나가고 있다.

그는 이번에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조국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해 꾸준히 배우며 힘쓰고 있다.

뒤 떨어진 동무를 도와

김 항덕

이 동무는 자강도 화평 중학교 6 분단 위원장 김 항덕 동무에요.

이 동무네 집은 학교에서 30 리나 된답니다. 항덕 동무는 먼 30리'길을 다니면서도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다니는 최우등생이지요. 언제나 아침 일찌기 마을에 있는 소년단원들을 데리고 학교에 오면서 소년단원의 의무도 가르쳐 주고 그 전 날 배운 것을 차근차근 알려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은 모두 항덕이와 함께 다니기 좋아 한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학교 길 30 리를 오가며 항덕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마을 아이들은 거의나 우등 최우등 생이랍니다.

그런데 분단에서는 바로 학교 곁에 집이 있는 최 창원 동무의 뒤 떨어진 산수 성적 때문에 안타까왔답니다.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한 후부터 항덕 동무는 그 먼 데서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나 창원이네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학교에 온답니다. 그래서 창원이와 함께 교실 소제를 하고는 공부가 시작될 때 까지 그의 산수 공부를 도왔답니다. 항덕이의 마음에 감동된 창원이는 공부에 열성을 내게 되여 지금은 우 등생이 되였어요.

항덕이는 이렇게 분단을 위한 일이라면 있는 힘을 다하는 동무랍니다.

소 설

가장 귀중한 것

강 효순 그림 맹 동원

(전 호에서 계속)

4

조금 후에 의사가 나왔다.

《아이구 죽겠어요. 빨리 약을 좀 발라 주서요.》 하며 창국이는 순사가 써 준 편지를 의사에게 내 주었다.

의사는 편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약을 발라 주었다.

창국이는 절룩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간 후에 우식이는 곧 쪽지를 펴 보고 싶었으나 특무놈 때문에 볼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년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어떤 소년일가? 그리고 이 쪽지는 무슨 쪽지일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식이의 가슴은 사뭇 뛰였다.

시간이 퍽 그나 흘렀다. 우식이는 부러 자는 척하고 코고는 소리를 냈다. 맞은 편 침대에 비스듬이 누어 있던 특무놈은 우식이가 진짜 잠든 것으로 알았던지 복도로 나가더니 《쿵쿵쿵》 하며 변소 쪽으로 걸어 가고 있었다.

우식이는 재빨리 쪽지를 펴 보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소년 선봉대는 동무를 꼭 구출하겠으니까 안심하고 행동을 취해 주기 바란다.—

쪽지를 보고 난 순간 우식이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흥분된 얼굴을 특무놈에게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그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심호흡을 했다.

우식이는 쪽지를 꼭 쥐고 손을 가슴 우에 올려 놓았다. 그는 한 없이 반가왔다.

(이곳에도 소년 선봉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끝 없이 기뻤다. 그리고 그들이 믿어웠다. 쪽지는 우식이에게 무한한 힘과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

《쿵쿵쿵》 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 왔다. 우식이는 쪽지를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 목 구멍으로 넘겨 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에 식모는 미움을 가지고

들어 왔다.

《오늘은 좀 먹어 보아라! 이틀씩 굶어서 어쩌겠니.》

식모 할머니는 친 아들이나 대하듯이 상냥하게 말했다.

우식이는 식모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느듯 어머니의 얼굴로 변했다.

(어머니는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가) 이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쑥 나왔다.

눈물은 량 볼로 쭈르르 흘러 내렸다.

《어서 좀 먹어 보아라!》

식모 할머니는 우식이의 볼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며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의 손'길이 자기의 볼에 닿자 우식이는 후닥닥 정신이 드는 듯 했다. (내가 이러구 있을 때가 아니야. 굳세게 맘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식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미음을 여러 술 받아 먹었다.

다리는 약을 발라서인지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식이는 부러 신음소리를 종일 계속했다.

그날 저녁이였다. 병원은 무척 고요했다. 시계가 열시를 친지 얼마 오래지 않아서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벅저벅 발 걸음 소리가 들려 왔다.

조금 후에 우식이가 들어 있는 방의 유리 문이 드르릉 하고 열리더니 들'것을 멘 사람들이 들어 왔다. 들'것에 누어 있는 환자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여 있었다. 솜옷은 절반이나 뚝 떨어져 나갔는데 얼굴과 머리에까지 피투성이가 되여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이구 아이구.》하는 환자의 신음 소리는 지금이라도 막 목숨을 걷우는 것 같았다. 특무놈도 환자를 드려다 보며 멍청하니 서 있을 뿐이였다.

들'것을 메고 온 한 소년이 의사를 데리고 나왔다.

《대체 어찌된 일이우?》 하고 의사가 물었다.

《이분은 우리 형님입니다. 글쎄 우둔하게 곰 사냥을 한다구 매일처럼 코를 만들어 가지고 산판으로 올라가더니 오늘은 글쎄 밤이 들도록 돌아 오지를 않더군요. 그래 온 집안이 떨쳐 나 산판을 뒤져보질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골짜기에서 이 모양이 되질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제발 사람 한 번 살려 주십시요. 치료비는 넉넉히 가져 왔습니다.》

의사를 데리고 나온 소년의 말이였다.

의사는 부상자 앞으로 다구어 서더니 그의 저고리를 벗기려고 했다.

특무놈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부상자 곁으로 와서 물끄럼이 드려다 보고 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환자는 저고리를 벗기우려고 몸을 돌리는 척하면서 후닥닥 일

어서며 품 속에서 권총을 쑥 뽑아 들었다. 그는 바루 최 선생이였다.

《꼼짝 말아라. 찍소리하면 쏜다.》

그의 권총은 의사의 가슴을 겨누었다.

의사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 그의 얼굴은 파래졌다.

이것을 본 특무놈은 깜짝 놀라며 휙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들'것을 메고 온 소년의 권총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

《아, 아니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며 특무놈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닥쳐라 이놈!》

소년은 나직하면서도 위엄차게 말하며 포승줄로 그를 얽어 맸다.

최 선생은 수건으로 의사의 입을 막고 기둥에 꽁꽁 비끌어 맸다.

《우리는 당신을 신임하구 살려 줄테니까 일본놈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오. 알겠소?》

최 선생은 엄하게 이렇게 말했다.

의사는 말은 못하고 머리만 끄덕이였다.

이러는 사이에 들'것을 메고 왔던 소년들은 우식이를 들'것에 올려 놓고 옆 문으로 빠져 나갔다.

《네놈은 나가자.》

최 선생은 권총으로 특무놈의 등을 쿡 찌르며 호령했다.

《아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입원시키구 간호해 주던 일 밖에 없는데요.》

《누구 앞에서 함부로 지꺼리냐. 네놈은 나를 몰라두 나는 네놈을 잘 알구 있다.》

그는 특무놈을 문 밖으로 밀뜨렸다. 특무놈은 어정어정 밖으로 나가 발걸음을 옮기였다.

소년들은 우식이를 떠 메고 이미 약속한 범바위를 향하여 산판으로 달렸다. 어느듯 중천에 올라 온 밝은 달은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비쳐 주었다.

그들은 어느듯 범바위 앞에 이르렀다.

《여기서 기다리자 최 선생님이 곧 올라 오실거야.》

그들은 우식이를 범바위 앞에 놓았다.

우식이는 정말 꿈 같았다. 이 동무들에게 무어라구 감사의 뜻을 말해야 할런지 알 수 없었다.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우식이는 목 메인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 무슨 알맞는 말마디를 찾을 수 없었다.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우리들은 응당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한 소년의 대답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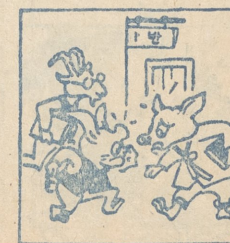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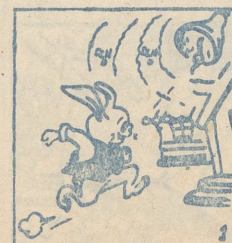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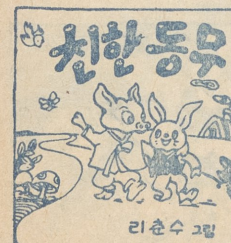
이때에 멀리서 한 방의 총소리가 들렸다. 달빛 아래 서고 있는 두 소년은 서로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조금 후에 최 선생이 그리로 올라 오셨다. 그는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우식이 앞으로 달려 갔다.

《야, 참 너 얼마나 고생했냐. 하맣더라면 큰 일 날번 했구나.》 하며 그는 우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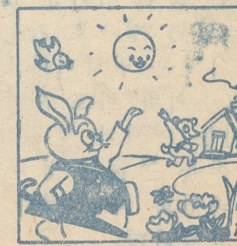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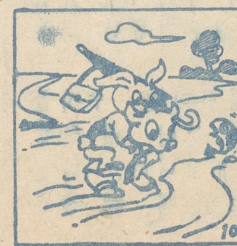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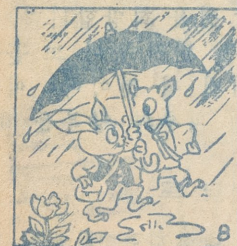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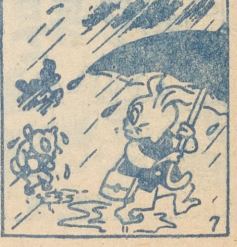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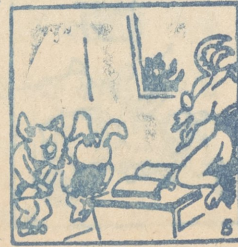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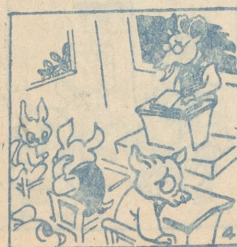
《고마워요 아저씨! 저때문에 정말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가 무슨 수고겠냐. 그저 통쾌할 뿐이다.》

그는 말 그대로 산판을 울리며 통쾌하

게 웃어댔다.
《그런데 너의 집은 여기서 얼마나 머냐?》 하고 그가 물었다.
《35 리쯤은 될거야요.》
《그럼 문제 없다. 첫 닭이 울기 전에 넉넉히 집에 닿을 수 있을 게다.》
이말에 우식이는 가슴이 섬짓했다.
(집으로 돌아 간다?)
우식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었다.
《나는 집으로 바루 돌아 갈 수 없어요.》
우식이는 똑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최 선생은 자못 놀라는 표정이였다.
《나는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어요.》
우식이는 울음이 북바쳐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먹음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아동단원이야요. 아동단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구 집으로 그저 돌아 갈 수 있어요?》
그의 두 눈은 새'별처럼 반짝였다.
들'것 옆에 가지런히 서고 우식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소년은 서로 바라보며 손들을 꼭 쥐였다.
최 선생은 머리를 끄덕이며 우식이를 사랑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련락 임무를 맡아 가지고 가댔지?》
《네! 나는 그이를 꼭 만나야 해요.》
《네가 가지고 가던 문건은 이미 불에 타버리지 않았냐?》
《타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그이를 찾아가서 귀중한 문건을 불태워 버렸다는 이야기라도 전하고 돌아 가야 해요.》
최 선생은 우식이를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미안하지만 저를 새 마을 물레방아'간 곁에 있는 담배 가게 뒤'집까지 가게해 주서요.》
《담배 가게 뒤'집?》
최 선생은 자못 놀랐다. 두 소년도 놀랐다.
《네! 나는 우리 집까지는 돌아 가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리로 먼저 가게 해 주서요.》
《너는 그이의 이름을 알고 있겠구나.》
최 선생의 물음이였다.
《성도 이름도 몰라요, 그저 신호를 알고 있을 뿐이야요.》
《그 신호를 여기서 한 번 해 볼 수는 없겠냐?》
《그 신호를 알아 가지고 아저씨가 가겠단 말이죠, 그건 안돼요. 내가 그 분을 만나서 직접 해야 해요. 그것은 조직의 비밀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최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만족한 얼굴을 지였다.

《김 철수 동무는 아동단원을 아주 훌륭하게 교양했는걸!》
그는 혼자'말처럼 이렇게 말하며 우식이의 손을 꼭 잡았다.
《네? 김 철수 선생을 어떻게 아서요?》
우식이는 깜짝 놀랐다.
《알지! 아주 잘 알지! 너는 그 편지를 김 철수 동무로부터 북바위 앞에서 받지 않았냐?》
《그래요.》
우식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최 선생을 빤히 처다 보았다.
《네가 찾아 가는 사람이 바루 여기에 서 있다. 그래도 신호를 하지 않겠냐. 허허 허허》
그는 큰 목소리로 웃는 것이였다. 우식이도 그분을 처다보며 따라 웃었다.
우식이는 휘'파람으로 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렀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수 많은 별들도 우식이의 휘'바람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우식이는 아리랑을 한 번 불러도 좋은 것을 두 번이나 불렀다.
우식이의 휘'파람이 끝나자 최 선생은 나오지도 않는 기침을 세 번 계속했다. 이것이 그들의 신호였다.
《선생님!》
우식이는 최 선생의 목을 끌어 안았다. 최 선생은 우식이를 끌어 안고 자기의 볼로 그의 볼을 오래도록 문질렀다.
《네 이름이 뭐지?》
《박 우식입니다.》
《박 우식!》
최 선생은 입 속으로 붉은 소년인 그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 보았다.
《우식이는 조직의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귀중한 문건을 전달하지 못했는데두요?》
《그대신 나는 김 철수 동무를 이 날이 밝기 전에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최 선생은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럼 떠나도록 하자. 뒤는 내가 멜테니까. 너희들은 앞을 메도록 해라!》
세 사람은 우식이를 메고 일어섰다.
우식이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게 쪽지를 전해 준 그 소년은 누구인가요.》
《이 동무들과 같이 일하는 소년 선봉대원인데 창국이라고 부르는 소년이란다. 왜 만나고 싶으냐…》
《만나도 특별히 할 말은 없을거야요.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발'등이 빨리 낫기만 바랄 뿐이야요.》
《우식이는 묻지 않고서도 벌써 그 일을 알았구나. 창국이는 지금도 자기의 처소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을게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험한 산'골 길을 더듬어 들어 갔다.

(끝)

화학 섬유에 대한 이야기

(2)

비날론

비날론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첫 합성 섬유입니다.

비날론은 보통 면직물의 대용으로 쓰이는 데 면직보다 3, 4 배나 더 질깁니다.

비날론 천은 물에 젖었을 때 잘 줄지 않으며 스프나 인견사와 달라서 살에 붙지 않으며 찬 느낌이 없습니다.

양모나 면 또는 스프와 섞어 실을 뽑거나 천을 짜면 품질이 좋은 외투지, 양복지를 만들 수 있고 메리야스 내의류, 양말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면직으로 만든 양복은 2~3년 입는다면 비날론으로 만든 양복은 6~8년을 입을 수 있답니다. 또한 비날론은 피대나 고기 그물을 만드는 등 공업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 비날론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금년에 지금 건설된 비날론 공장을 1 년에 2만톤의 비날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비날론 2 만톤이면 1 억 5 천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으며 다른 섬유와 섞어서 쓴다면 3 억m 나 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급 양복을 만들면 5 천만 벌을 만들 수 있고 양말만 짠다면 실로 4억 켤레를 짤 수 있습니다.

비크론

동무들은·염화비닐 수지로 만든 구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염화비닐 수지로서 그만한 굵기의 실을 뽑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옷을 짤 수 있는 정도로 가는 실은 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비크론이란 바로 이 염화비닐 수지를 염소라는 기체와 작용시켜 얻어 낸 물질에서 실을 뽑은 합성 섬유입니다. 다른 말로 과염화 비닐 섬유 또는 뻬. 쩨 섬유라고 말합니다.

염화비닐 수지를 만드는 원료는 카바이트, 소금, 전기이므로 비크론의 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크론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섬유 중에서 화학 약품에 제일 잘 견디는 섬유입니다. 여러분은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혹시 류산을 면직 옷에 떨구면 인차 옷에 구멍이 뚫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면직이나 모직이 화학 약품에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크론은 진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딥니다.

뿐만 아니라 비크론은 바다'물에도 잘 견디며 벌레나 균들도 먹지 못하며 또 물에 들어 가 오래 있어도 불어 나거나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크론으로 화학 공장 로동자들의 작업복이나 항상 바다'바람을 쏘이는 배의 돛, 고기 그물 등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크론으로는 질 좋은 외투지와 양복지 천을 짤 수 있으며 목화의 솜보다도 더 따뜻한 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비크론은 열에 잘 견디므로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이나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작업복을 만들면 좋습니다.

1961년 5월 7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비날론 공장 건설과 염화비닐 공장을 건설한 기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명년 5. 1절은 비크론 섬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맞이 할 것을 희망합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 또 훌륭한 비크론 공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천으로 좋은 외투와 양복을 해 입게 될 것입니다.

니트론

니트론은 모직을 대신하는 훌륭한 합성 섬유입니다.

니트론의 원료는 카바이트와 일산화 탄소, 암모니아 등입니다.

니트론으로 만든 천은 젖어도 줄지 않고 빨래한 후에 다림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트론 천은 양털보다 두배 이상이나 질기며 색이 날지 않고 꾸겨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솜이나 인조 섬유보다도 더 폭신한 감을 주어 양복 천으로써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니트론과 같은 고급 양복 천을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비날론에 이어 니트론에 대한 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박천 지구에다가 니트론 공장을 건설할 과업을 내놓으셨습니다. 만약 5 천 톤의 니트론을 생산하여 다른 섬유와 함께 실을 만들어 천을 짠다면 약 3,700 만 메터의 천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서는 670 만 벌의 고급 양복 또는 4 백만 매의 모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일론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들어 낸 합성 섬유가 나일론입니다. 이것은 1938년의 일입니다.

나일론은 보통 명주 대용으로 쓰이는 합성 섬유입니다.

나일론을 만드는 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유 있는 나라에서는 석유로부터, 석탄 있는 나라에서는 석탄에서, 또 농산물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옥수수 속이나 밀짚으로부터 나일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로부터 나일론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복잡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일론은 가볍고 습기가 있는 데서도 그의 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화학 약품에 비교적 잘 견딥니다. 나일론은 명주보다 5 배 이상이나 더 질기답니다. 면직 양말은 잘 신어야 한 달 이지만 나일론 양말은 6 개월 이상 신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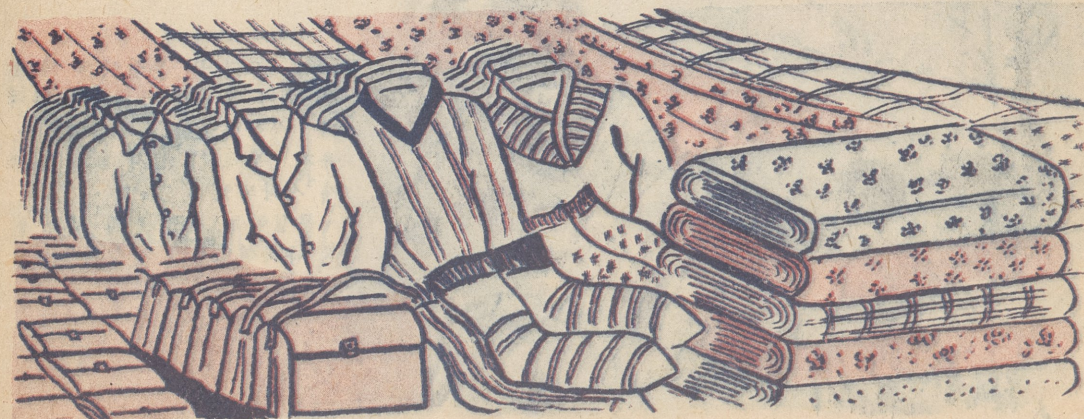
나일론으로 치솔이나 옷솔을 만들면 보통 치솔 옷솔보다 훨씬 가볍고 오래 씁니다.

나일론은 질기므로 락하산 천으로도 쓰입니다.

나일론으로 실을 뽑지 않고 가죽처럼 만들어 구두를 지으면 썩지도 않고 좀 안 먹는 좋은 구두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은 나일론 와이샤쯔와 나일론 양말입니다.

이것들은 가볍고 아주 맵시 있고 화려합니다. 나일론으로 만든 내의류나 양말은 빨래하고 다릴 필요가 없으며 빨래하기에도 매우 간편합니다.

이렇게 나일론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 화려하게 하여 주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합성 섬유이므로 우리 당에서는 일찍부터 나일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사업을 진행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역시 가까운 장래에 박천 지구에 니트론과 함께 나일론 공장을 건설할 과업을 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라지 않아 나일론 공장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글-박 응호
그림-최 순천

(52) 문섭이는 며칠 사이에 근거지와 적 통치 구역 근방의 산의 높이, 강물의 깊이 등 일체 지형들을 정찰하였다. 그는 다시 통신망을 펴는 일에 달라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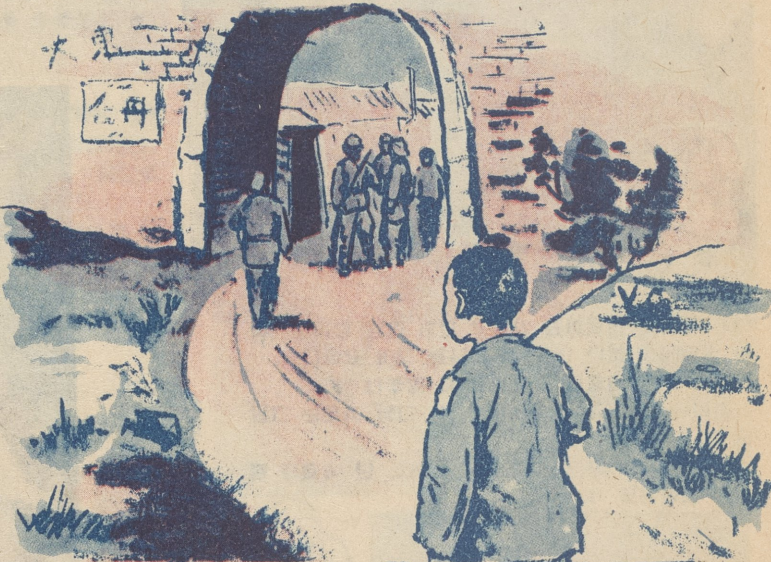
그는 10 리 가까운 부락에 련락할 임무가 생기면 그 통신원들이 자기 맡은 구간을 달려 다음 부락에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53) 문섭이는 20 일 동안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훌륭히 해내였다. 봉희 누나는 문섭이의 훌륭한 모범을 전 중대원들에게 알렸고 그의 위임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칭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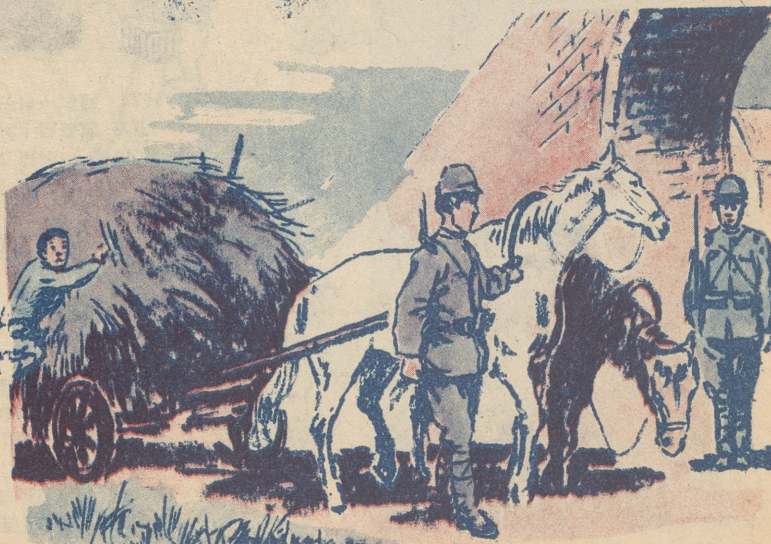
(54) 드디여 문섭이가 해 놓은 일이 훌륭한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가을이였다. 유격 부대의 성시 해방 전투가 시작되였다.

문섭이는 직접 련대 정치 위원 아저씨로부터 정찰과 통신 임무를 받았다.

(54) 문섭이는 혼자서 적 통치구를 향하여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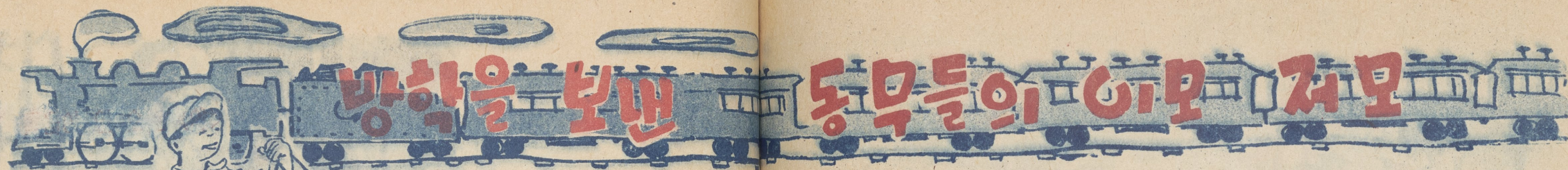
목동 차림을 하고 원쑤들 속으로 들어 가는 그의 가슴에는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 오리라는 굳은 결심이 소용도리쳤다.

(55) 성 문에는 일본 군대놈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붙잡아 놓고는 시시 콜콜 몸 수색을 하였다.

문 섭이는 멀지 감치에 서서 잠시 망서리였다.

도저히 성안으로 들어 가낼 것 같지 않았다.

(56) 이때였다. 위만군 한 놈이 마초를 잔득 실은 마차를 몰고 왔다. 이것을 본 문섭이는 재 빨리 마차 뒤로 돌아 가 백였다.

이리하여 그는 무사히 성 문을 통과 하였다.

방학을 보낸 동무들의 이모 저모

여름 방학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는 소년단원 동무들! 지금 기차에서 막 내리고 있는 동무가 누군지 아세요! 작난 꾸러기 용이 동무예요. 이 동무는 여름 방학 동안을 거의 농촌에 있는 외할머니네 집에 가서 작난에만 팔리여 이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에야 동무들을 찾아 오는 길입니다. 용이는 지금 민충이를 한마리 잡아 가지고 오면서 여러 동무들을 찾아 가서 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용이는 민충이를 가지고 먼저 함남 장진군 해방 중학교 9 분단 안 순녀 동무를 찾아 갔습니다.

용이…《너 민충이 가지고 놀지 않겠니?》

순녀…《난 지금 학습 시간이야 그날 과제는 그날에 꼭 해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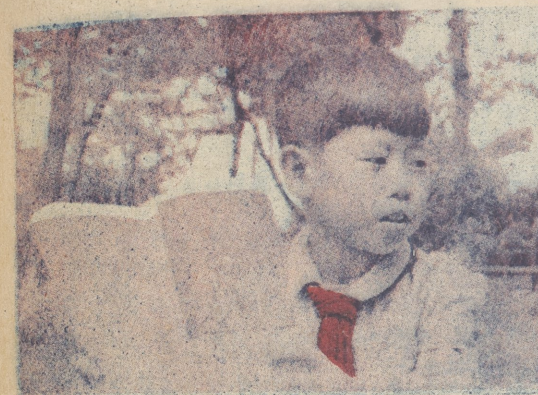
용이…《너는 공부만 하고 있었구나. 난 숙제를 절반도 못했는데…》

(2). 용이…《너는 선반기를 돌리는 법을 어느 새 그렇게 배웠니?》

명률…《이번 방학 동안에 완전히 배웠어.》

용이는 친한 동무인 자강도 희천 중학교 20 분단의 명률 동무를 찾아 갔으나 크루쇼크에서 선반기를 척척 돌리는 그에게 민충이를 자랑하기는 부끄러웠습니다.

(3) 승철…《나는 이번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배운 동식물을 자연 속에서 찾으면서 마음껏 배웠단다. 표본도 200 여 종이나 만들었어.》

용이가 오던 길에 만난 동무는 평북 구장군 룡철 중학교 박 승철 입니다. 용이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민충이를 뒤로 감추었습니다.

(4) 자강도 동신군 원흥 중학교 2 분단 최 순옥 동무를 찾아 갔으나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용이가 온것도 알아 차리지 못하였어요. 그는 방학 동안에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어린 혁명 전사들》을 비롯하여 벌써 30 여 권의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5) 용이는 이번엔 평남 양덕군 양덕 중학교 제5 분단 동무들을 만났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학 동안에 조기 체조, 랭수 마찰 등으로 몸을 단련하여 몰라보게 튼튼해진 것이었어요.

용이…《동무들은 모두 방학을 그처럼 보람있게 보냈는데 나는 이런 민충이만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 참 바보였구나.》

용이는 민충이를 땅에 던지었습니다.

(6) 용이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밀린 과제도 끝내고 크루쇼크 생활과 자연 관찰, 유쾌한 유희, 체력 단련 등으로 나날을 즐기였습니다.

(7) 개학날 동무들과 손을 잡고 학교로 가는 용이의 발걸음은 한결 씩씩하고 가벼웠습니다.

동요

8.15 명절 날에

둥근 해가 솟았다.
아침 해가 솟았다.

천리마의 강산에
8월의 하늘 높이
눈부시게 솟았다.

우리는 나간다.
8월의 광장으로
가슴마다 붉은 넥타이
새 교복 입고

우리 명절 8.15
저 하늘에 노래하며
발걸음도 씩씩하게
우쭐우쭐 나간다.

해'님도 굽어 본다.
벙글벙글 웃으며
우리들이 부럽다고.

멎어서 본다.

그렇다 노래하자 하늘 높이
이행복 이기쁨
감사드리자
우리 당과 수령님께

해'님은 따라오며
물어 보누나
이 행복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련?

우리들은 서슴 없이
대답하였네
최우등생 모두 되여
우리 자랑 떨치겠다고.

남포시 서흥 중학교
3 학년 정 대웅

(이것을 아십니까?)

바다'물의 온도와 물'고기

바다'물은 태양열과 지구의 열을 받아 일정한 온도를 가진다. 바다'물의 온도는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계절의 변화, 해류, 바람, 비, 바다'물의 증발, 물의 움직임 (아래 층의 물이 우로 올라오는 것)등에 의하여 달라지며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할 때가 있다.

여름철 우리 나라의 동해의 수온은 최고 28~29 도이고 가을에는 2 도 정도이다.(세계에서 수온이 제일 높은 페르샤만은 35.6도 이다.)

물'고기들의 생활은 바다'물의 온도와 아주 큰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어떤 물'고기든지 자기가 제일 좋아 하는 온도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례를 들면 명태는 2~4도, 조기는 12~15도, 고등어와 공치는 16~18도의 수온을 좋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물'고기를 손 쉽게 잡는 방법의 하나로서는 그 물'고기들이 좋아 하는 수온을 가진 곳을 찾아 내는 것이다.

명태는 2~4도의 수온을 즐기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는 먼 바다'밑에 나가 살다가 가을이 되면 점점 연안으로 들어와 알을 낳으며 생활한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는 다시 먼 바다로 나간다.

때문에 여름 철에도 먼 바다에 나가면 명태를 얼마던지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동해와 서해에는 물의 온도가 서로 다른 한류와 난류가 흐르는 관계로 계절이 바뀜에 따라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 온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수산 자원이 아주 풍부한 것이다.

동요

당대회에 최우등 선물을

붉고 붉은 넥타이 자랑스레 날리며,
오늘도 친한 동무
학교 갑니다.
어깨 걸고 씩씩하게 학교 갑니다.

편지 받은 기쁜 얼굴
마주보면서
우리 할일 가슴마다 새겨 안고서
발 걸음도 가볍게 학교 갑니다.

아동단원 그 마음
이어 받은 우리들
모범 분단 되자고
다짐하면서

어머니—당 대회에
최우등 선물
모두모두 드리자고 다짐하면서
활개치며 씩씩하게 학교 갑니다.

함남 고원군 고원 중학교
2 학년 림 선애

웃음 주머니

오늘부터 방학인 줄 모르세요

어머니—애 영철아, 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조반 먹으렴

영철—(기지개를 켜며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내다보며) 어머니 빨리 밥 주세요.

어머니—아니?! 애가 오늘은 세수도 하잖고 밥부터 먹을 작정이냐?!

영 철—어머니두 참 오늘부터 방학인 줄 모르세요.

어머니—그럼 방학인데 밥도 한끼씩은 건느려므나.

영 철—아니, 밥이야?!

량강도 백암군 연암 중학교
3학년 문 소녀

(이것을 아십니까?)

안개는 어떻게 생기는가?

물은 항상 태양 열에 의하여 수증기 (작은 물방울)가 되여 공기 중으로 날아 나고 있다.

공기는 증발된 수증기를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량의 수증기 밖에 받아 들이지 못한다.

공기는 그 온도가 높을 때에는 수증기를 많이 흡수하고 그 온도가 낮을 때에는 적게 흡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언제나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것만큼의 수증기를 흡수하고 그 나머지 수증기는 «로해서»밖으로 내 보낸다. 례를 들면 만약 더운 공기가 많은 수증기를 흡수했다가 공기 온도가 차지면 차거운 온도에 적당 하리만한 수증기를 남겨 두고는 나머지 수증기는 «로»해 버린다. 이렇게 공기 밖으로 나온 수증기(적은 물방울)는 곧 땅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공기 중에 떠 있게 된다. 이리하여 구름과 안개가 생긴다.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까?

동무들은 어느 책에서인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책에 누가 쓴 글이며 누가 한 말씀입니까?

(1) «…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잠을 잤겠는가? 우리가 어째서 아무 데를 가나 여러 곳에 보초를 세우는가! 조국의 운명을 걸머진 우리 모두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이요…»

(2) «… 나는 이젠 죽는다. 나는 아동단원 답게 죽으련다. 내 이 원쑤를 갚아 줄 사람은 얼마던지 있다. 네놈들이 자빠질 날은 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심장으로 믿고 있다…… 조선 독립 만세!»

☆ 6호 현상문제 답 및 당선자

답안

1) 키가 작고 옆가지가 많이 뻗은 소나무는 양지바른 언덕에서나 혹은 평지에서 자라면서 해'빛을 마음 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키가 크고 잇밋히 자란 소나무는 음침한 밀림 속에서 자

라면서 해'빛을 적게 받은 탓입니다.

2) 솔씨입니다.

황남도 신천군 새날 중학교 홍 광호

당선자

황남도 신원군 계남 중 학교 신 익영
황남도 은천군 학월 중 학교 정 술이
개성시 사직 중 학교 유 성준
평양시 경림 중 학교 김 창효
평남도 남포시 서흥 중 학교 정 대용
함남도 신창군 속후 중 학교 김 영선
함남도 정평군 정평 중 학교 신 정섭
강원도 고성군 고성 중 학교 김 종수
함북도 온성군 심청 중 학교 전 형일
함북도 화대군 용원 중 학교 허 송봉
량강도 갑산군 갑산 중 학교 박 철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8 호 (총 142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373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우리들의 그림 페지

← 평남 숙천군 통덕 중 학교 정종운

↑ «동무의 학습을 도와»
함남 북청군 성남 중 학교 5분단 리 재수

← 함북 김책군 학성 중 학교 송 수현

→ «조국의 평화적 통일»
함남 신포시 어항 중 학교 김 영길

소년호